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양 지 혜

2021년 8월



제주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남 진 열

양 지 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양지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년 8월

The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Jeju

Yang Jee-Hae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1.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4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4
2) 제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5
3) 취약계층 노인의 일반적 특성.....	7
2.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	10
1) 노인의 사회활동의 개념.....	10
2) 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	13
3) 선행연구 검토.....	16
3. 노인의 삶의 질	18
1) 삶의 질의 일반적 개념.....	18
2) 선행연구 검토.....	20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3
2. 연구모형.....	24
3. 측정도구.....	24
1) 측정도구 및 신뢰도.....	24
2) 노인의 사회활동 측정.....	25
3) 노인의 사회적 지지 측정.....	25
4) 노인의 삶의 질 측정.....	26
4. 자료 분석 방법.....	26

IV. 연구결과.....	27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28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29
4.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2
1)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2
2) 사회활동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4
V. 결론 및 제언.....	36
1. 연구결과 요약.....	36
2. 제언.....	38
3. 연구의 한계.....	40
참고문헌.....	41
Abstract.....	52
<부록> 설문지.....	53

<표 목차>

<표 1>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7
<표 2> 설문지 수집현황.....	23
<표 3> 측정도구 신뢰도.....	25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29
<표 6>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31
<표 7>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3
<표 8> 사회활동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34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24
------------------	----

국문초록

제주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양 지 혜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제주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배부된 설문지 4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7부를 제외하고 383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인의 사회적 지지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노인,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 삶의 질, 제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의 진입이다. 돌아오는 2060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고령화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인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정책적·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은정, 2019).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 감소와 인간의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원인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것이다. 2020년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 71만명이 노년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2028년까지 한해 약 69만명에서 9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였다(송인욱·원서진, 2020; 이정일·이철원·설수황, 2021).

전 세계적으로 저 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에 따라 급속하게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자녀들이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능력이 계속 감소하는 노인인구 집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통계청, 2021).

저소득층 43%이상이 70세 이상 노인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취약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 자녀와 가족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노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노인은 노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당연히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통계청, 2021).

2020년 한국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5.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거노인의 수와 1인 가구 수의 비율을 상승하게 하고 있다. 2047년에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20).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동거가족이 있는 일반 노인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독거노인은 그럴 수 없기에 사회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정관·김준현, 2013).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 한국도 포함이 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이나 고독은 노인에게 깊은 우울감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사회문제로 노출되고 있다(통계청, 2021).

독거노인은 건강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질병의 증가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건강을 인지하는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문성제 외, 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평균 3.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비 독거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독거의 생활이 계속 확산 되고 있는 제주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리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주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노인에 비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령 범위 내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단독가구가 많고 노동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진영, 2001).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 노인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노인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형(노노케어, 경로당도우미등)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문제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사회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인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 퇴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몇 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의 퇴화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적 기능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생활 주기상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박경숙, 2017).

노인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는 입소자격자로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할 수 있으며, 제39조의9(금지행위)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 정하고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노인의 정확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고령자인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예시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이희성·권순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노인 74.1%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 규정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노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노년의 활동을 주장하는 노인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인, 병들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존경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가난하다는 등을 본인 자신과는 다르다는 구분을 짓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은 인권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관에 기준을 두고 욕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박경숙, 2017).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강조되는 생명존엄, 자기결정, 자유와 사회보장권은 노인의 삶에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원칙」(UN, 1991)에서는 자아실현과 존엄성의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나이와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 등에 상관 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인의 개발은 적극적인 노인의 참여와 노동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연령 차별금지와 고령화를 세계개발 의제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정경희·정은지·남현주·최혜지, 2012). 이처럼 노인의 독립, 사회참여, 돌봄, 존엄성과 자아실현에 대한 원칙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권, 자기결정권, 자유권, 사회보장권, 차별금지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박경숙, 2017).

2) 제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제주도는 약 674천명(2021 현재)의 도민이 살고 있는 섬 지역으로 육지와와의 교통수단은 배와 항공을 이용한다. 섬 전체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옛 부터 삼다, 삼무, 삼보의 섬으로 불려왔으며, 이러한 환경은 제주 특유의 생활문화와 신뢰, 자립, 평화정신을 길러 주었다. 또한 분짓(分家; 분가 또는 안거리·밖거리 문화, 자주자립) 정신, 수눌음(상부상조) 정신, 조냥(근면절약) 정신, 켜당 문화와 같은 제주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였다(진성기, 1966; 윤용택, 2015 재인용; 김진아, 2019).

제주의 가족문화에서 노인부양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가 한 집안에서 살고 있지

만 별개의 집(안거리, 밖거리)에서 살면서 상호독립적인 생활과 부양체계를 갖고 있는 주거문화를 오랫동안 형성해 왔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 여성독거노인은 경제, 건강, 주거환경, 무료함 그리고 학대 및 차별 등의 문제를 생활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보선, 2014). 또한 만성질환 등을 노화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나이가 들어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성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삶의 활기를 찾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에 이르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의 노인은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외부활동이 가능할 때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혜숙·강기은, 2013).

김진영(2004)은 제주지역 80세 이상 장수노인의 특성으로 순응적인 생활, 독립적 생활의식, 노동의 근면한 태도, 자립정신, 공동체의식이 강하며, 여성들의 자의식이 두드러진다. 노동자체가 일상생활이었을 만큼, 장수노인의 노동 정도는 매우 높으며, 일 자체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려웠던 인생살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장수도(長壽度)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박삼옥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은 초 고령사회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전망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으로 궁극적으로 2016년 이후에는 잠재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제주도는 미래의 초 고령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 진단을 통하여 장수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해 준비 없이 기다리면 희망보다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된다(고승한, 2008).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2017~2037)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7년 8만9천명에서 2037년에 22만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만 6,533명(15.3%)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행정구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2021년 고령사회, 2029년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서귀포시는 2023년에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표 1>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세계	전국	제주
2019년 (9.1%)	2019년 (14.9%)	2019년 (15.0%)
2067년 (18.6%)	2050년 (20.3%)	2025년 (20.0%)
	2067년 (46.5%)	2035년 (28.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21년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2020년 제주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10만 6,533명 중 독거노인은 6,953명이다. 제주시 4,437명, 서귀포시 2,516명으로 노인인구 42%가 독거노인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독거노인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제외된 숫자임을 감안할 때 실제 독거노인은 더 많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보건복지부(2021)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8년 3.3%→2020년 7.9%)에 있다. 가족관계에서는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가 증가(2008년 66.8%→20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2008년 27.6%→2020년 20.1%) 하였다. 자녀와 동거 희망 비율의 감소에 따라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형성비율이 기존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에서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감소한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을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 활동, 경제활동, 친목(단체)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서 응

답자의 절반 정도(49.6%)는 개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건강 상태 50.5%, 경제 상태 37.4%, 여가 및 문화 활동 42.6%, 배우자 관계 70.9%, 자녀관계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 58.9% 등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리고 동법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탁과 경험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2021)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공공형에는 하위유형으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으로 구분되고, 민간형의 하위유형으로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노인은 모두 공공형의 하위유형인 공익활동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갖는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경제적인 선별점수¹⁾에 의해 선발이 되어 경로당 실내·외 도우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손지사랑 어린이집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다.

(2)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이다. 대상자 자격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2020년 159만명→ 2035년 313만명, 85세 이상 노인 2020년 77만명→ 2035년 176만명)로 인해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따른 정책에 의해 기존 6개 사업(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

1) 경제상황, 동거가족, 참여횟수로 점수가 산정이 되는데 소득이 없고 독거이며 처음 참여자일수록 점수가 높아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수행기관에 따라 사업종류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다).

관 책임 운영, 그리고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로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군은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분리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2.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

1) 노인의 사회활동의 개념

(1) 사회활동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으로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더욱 높아졌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확진율과 사망률은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2020, 안수란).

일반적으로 노인을 의존적이고 주변화 된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가정 및 친척 중심의 비공식적 활동으로 축소되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은 비공식적 활동영역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게 되었다.

노인은 다차원적 욕구를 가진 존재임에도 삶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위기 상황에 위협을 받게 된다. 노년기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회 변화·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노인이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 되었을 때 노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무력감을 겪게 된다(정승은·최영희, 1996).

활동이론에서처럼 노년기의 사람들은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노인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결정하며,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인지기능의 저하, 치매 유병률, 우울증 등을 감소시킨다.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의 인적자본이 높아져서 유급근로(Paid Work)를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무급 활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 국가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주요 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지은정, 20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은 사회참여를 ‘일, 가족, 친구, 이웃 사람과의 친목활동, 개인적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과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복지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사회참여를 관계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미시적 관계에서 거시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속성을 포함하는 정의이다. 즉,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행위에서부터 이웃과의 교류와 조직화된 집단 활동으로 종교 활동, 시민단체 참여, 학습 활동, 취미활동, 정치활동 등 지역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김춘남 외, 2016 재인용).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정의하는 사회참여 활동은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 가족 및 친구 간에 수행되는 비공식적 지원활동, 기타 학습활동과 종교 활동, 사회단체 참여활동 등 다양하다. 결국 노인의 사회참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인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사회활동을 의미한다(김주현, 2009; 신희정·이혜경, 2019).

노인의 사회활동은 노인 혼자서 하는 활동이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인과 상호작용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자원을 공급 받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거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퇴 후의 노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미활동, 자기개발활동, 단체 활동, 종교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사회활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의 삶을 제공하게 된다(조추용, 2004).

노인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등의 기회를 계속 갖게 되고, 이러한 사회활동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상해 주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며, 환경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개인적인 가치감과 만족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건강하게 한다(전혜정, 2003; 김미령, 2006).

활동이론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면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사회적 노년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강현정, 2009; 전명진·문성원, 2016). 또한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양민희, 2009).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개인이 갖게 되는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금숙, 2016). 또한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삶의 만족을 유지하려면 노년기에도 직업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조직적인 여가활동이나 노인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노인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노인이라서 당연히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안수란, 2020).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연결하였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에 노인의 사회활동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사회활동 종류: 노인일자리사업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한

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 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경제적 빈곤 해결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데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대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이고 참여하게 되는 동기 또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인들의 생활만족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유용식, 2016).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인 참여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한경혜·김주현, 2001; 강은나, 2018). 노인복지 분야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대부분 일자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제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일부 포함되었다(김도균, 2016).

최근 새롭게 요구되는 적극적 관점의 사회활동, 즉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의견이 필요하다(신희정·이혜경, 2019).

2) 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사전적 개념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 또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로서, 원조를 제공하는 원천을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원들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망(사회적 지지체계)이라고 한다(서강훈, 2013).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를 포괄하고, 신체적·정서적인 건강상의 문제, 위기들의 적응상의 문제, 사회적 분리, 독립 등으로 야기된 무력감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해결

해 가기 위한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하였다(이철수, 2009).

인간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교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측면으로 사람들 간에 관심·이해·위로 등 실질적인 도움 등을 교환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영자·김태현; 1999, 이미숙·김나영, 2007; 이인정, 2011).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Cohen & Hoberman, 1983).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그 범위로는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동료, 지역사회 등이 된다(남기민·정은경, 2011).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원조로서, 그 형태의 범위는 학자 및 연구 학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가족, 친구, 친척 등과의 인간관계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정, 존중, 사랑 등을 받아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강미희, 2019). 즉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는 그 범위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인지적 형태의 모든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봉선, 2019).

학자마다 차이가 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고, 자신이 돌봐지고,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고, 존중받으며,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관계망의 일원임을 믿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위기 상황에서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변수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망, 지지 형태, 지지 욕구 등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및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과 신뢰감, 자신감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했다.

성미혜 등(2011)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물질적 원조 및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심리사회적 안녕의 증가와 삶의 스트레스 상황들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질적인 차원에서 주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심리적 상태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김경배, 2017; 권영순·오서진·이상주, 2020).

김수영 등(2004)은 사회적 지지로서 자녀든 비혈연이든 사회적 지지 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인 가족, 친구, 이웃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하거나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같은 취미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 많은 심리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배나래·박충선, 2009).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는데,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때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인적, 물적 자본보다도 중요하다(강경란·박철우, 2017). 김상수와 임왕규(2017)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창업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기회 인식과 기회 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스트레스와 여러 상황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강영숙·정자영, 2020).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비공식적·공식적 지지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사회적 자원들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강영숙·정자영, 2020; 이인정, 20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간 다양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신체적, 물질적, 심리 및 정서적 욕구 또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송정화(2014)가 일부 수정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네 가지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의 사회활동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론이 Havighurst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하면(Cavan et al., 1949; Havighurst & Albrecht, 1953), 사회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생활만족도)이 높다는 것이다. 남기민(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인, 2009; 남기민·박현주, 2010; 전명수, 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모선희(1997)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은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상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았다. 박경숙(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이 한정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주현과 한경혜(2001)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장인협 외, 2006; 강현정, 2009; 양민희, 2009; 남기민 외, 2010; 주경희, 2011; 전명수, 2014; 유용식, 2016).

유용식(2016)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고, 주경희(201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경제활동, 친교활동, 자기개발 활동 등)는 노인의 삶의 객관적인 지표를 향상시키고, 주관적인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후의 성공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면서(이금룡, 2002; 강민연·김춘경, 2010;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박주홍 외, 2012; 정경희, 2017; 최성재, 2017).

(2) 노인의 사회적 지지

노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대처전략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우울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화, 2010).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에게 신체적·사회적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성미혜·임영미·주경숙, 2011).

농촌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노병일과 손정환(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많은 노인일수록 전체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속성을 제외한 기능적 속성 중심으로 연구되거나(이금옥, 2011; 김미애, 2012), 사회적 지지를 속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경숙, 2003; 김미령, 2006; 노병일·손정환, 2010). 그리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 하면(강경숙, 2003; 이금옥, 2011),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전 영역에 걸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김효진, 2007; 김미애, 2012).

이와 반대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은주, 2007)도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뜻하고(박현순·나동석, 2008),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건강유

지와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박선영, 1998).

안경숙(2005)의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구는 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노인독거가구는 친척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도구적 지지가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민과 정은경(2011)은 여성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 모두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김은정·정순돌, 2011; 김종임, 2011; 림금란 외, 2011)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은경과 하규수(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동거가족 유무, 건강과 경제상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믿고 의지할 자녀가 있으며,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석필과 김범호(2021)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노인의 삶의 질

1) 삶의 질의 일반적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오영희, 2005),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과 정신적인 측면(스트레스나 걱정이 없고 즐거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이 누리는 식사나 주거, 안전, 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나열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건강이 되고, 다음으로는 물리적 요건, 마지막으로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등이 인간의 궁극적 욕구라 할 수 있다(위키백과, 2021).

Lawton(1975)은 삶의 질이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면으로 노력하고, 주위 환경에 대해 적응하려는 느낌과 개인적 욕구 만족을 통해 자기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개인의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general well-being)에 있어서 주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경험들이 자기 내에서 독립되어 형성되는 내적 개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 상태,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은 노인 자신의 인생에 관한 행복 및 인생의 목표 달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노유자·윤경이, 1997).

노인의 삶의 질은 행복과 만족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정신적·환경적 요인과 생활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또한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 충족감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행위, 건강 상태, 신체적 상태, 사회적 지원 등의 다양한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안녕(well-being), 사회복지(social wellbeing), 생활 만족도, 생활수준, 좋은 생활, 행복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고,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안녕감이나 생활상의 만족 및 행복감에 중점을 두어 왔다(이영균, 1997). Liu(1975)는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주관적인 용어이자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노인의 건강한 삶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삶의 질을 Padilla & Grant(1985)는 건강, 검진 및 치료, 외모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등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

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Lewis(1982)와 Burckhardt(1985)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인간의 느낌, 유쾌하고 불쾌한 감정상태 간의 조화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Rice와 Miller(1990)는 일상생활의 기능, 사회 역할의 수행, 생산성, 지적 능력,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다측면적(multifaced)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삶의 질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김상균, 1996).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와 정의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비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지닌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발전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한형수(2008)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물질적·양적인 가치 뿐 아니라 생활의 질적 차원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개개인의 개별성과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인구 특성에 따라 요구되어지던 서비스의 다양화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영역과 삶의 질이 위축되고 주춤되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뉴노멀에 맞는 삶의 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강은나, 2020).

2) 선행연구 검토

노인집단을 연구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집단의 세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

러한 이유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측정도구와 지표들이 개발되어 왔다(김애련, 2001).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나라에 속하며,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et al.,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875점(0~10점 척도)으로 156개국 중 57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순위는 2005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삶의 질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하거나 감지하여 표현하는 만족감으로써 객관적인 지표에 주관적인 지표가 더해져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혹은 객관적인 측정은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노인이 심리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더 잘 측정하는 것이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Mitchell et al., 1973).

사회적 흐름에 따라 노년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인구를 연구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상실로부터 나타나는 우울, 고독, 자살 등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 그리고 삶의 질, 성공적 노화, 긍정적 정서 등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 등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화 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의 제한된 삶에서 행복 증진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고령화 인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인구 사회학적 변인, 사회 환경적 변인, 신체·생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등이 있다(조성희·유용식, 2016).

모든 국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산출을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정책 수립, 집행, 평가를 목적으로 삶의 질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삶의 질과 사회발전 측정에서 단일한 소득지표를 지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표들을 적용하여 복합지수(composite index)를 개발하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차용진,

2013).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측정지표, 주관적 측정 지표 혹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구성하여 종합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하는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한형수, 2002; 이영균·김동규, 2007). 삶의 질과 관련한 객관적 측정지표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주관적 측정지표는 개인의 생활전반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종합적인 측정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있다(이영균·최승인, 2016).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이 주관적 측정지표로 현재의 생활만족도 및 자기 인생의 만족도(한형수, 2002; 조수범, 2009; 장백기, 2011; 강혜련, 2014),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평가(손신영, 2006; 최홍권, 2010),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고보선, 2003; 한석태, 2008; 배정희·윤옥화, 2014)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참여대상자 1,500명 중 설문 가능한 대상자 400명을 표출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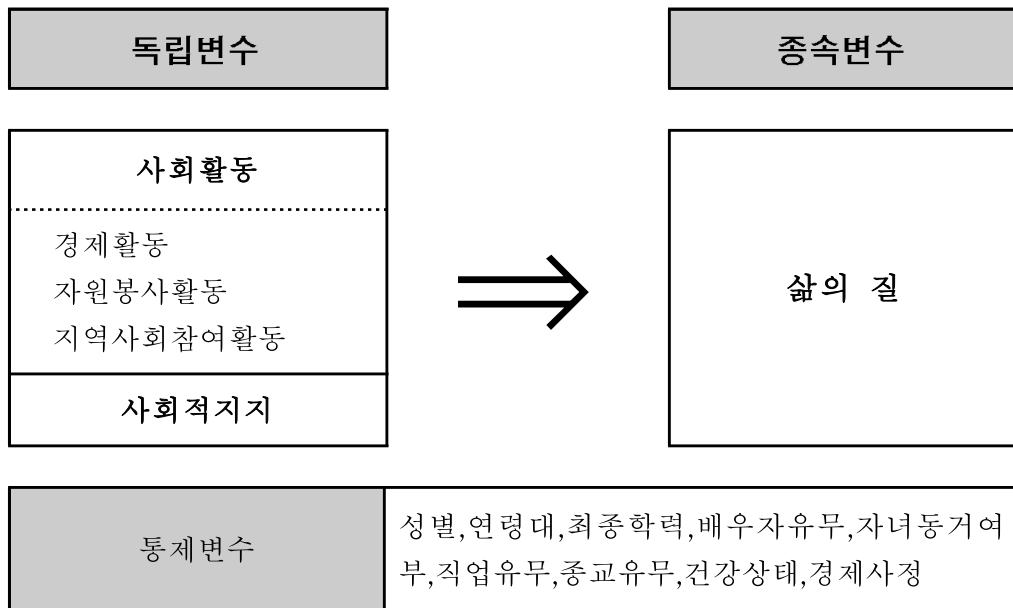
노인일자리는 전담인력(3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68명)가 각각의 대상자 노인으로부터 설문을 맡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설문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직접 설문지 기입이 가능한 경우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400부로서 이 중 불성실한 응답설문지와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383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표 III-1> 참조).

<표 2> 설문지 수집 현황

구분	배부	최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130	1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노인	270	261
합계	400	383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을 통제변수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아래의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 도구

1)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독립변인인 사회활동과 사회활동의 하위변인(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신뢰도계수(Cronbach'a)는 .944~.983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계수(Cronbach'a)는 .962, 그리고 종속변인인 삶의 질의 신뢰도계수(Cronbach'a)는 .8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도구 신뢰도

변인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	
독립변인	사 회 활 동	1-15	15	.944	
	하위변인	경제활동	1-5	5	.957
		자원봉사활동	6-10	5	.983
		지역사회참여활동	11-15	5	.951
		사회적 지지	1-12	12	.962
종속변인	삶의 질	1-5	5	.893	

2) 노인의 사회활동 측정

노인의 사회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중철(2014)이 오승환(2007), 이묘숙(2012), 이소정(2013)의 분류를 참조하여 경제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20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에서 종교활동 문항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5문항, 자원봉사활동 5문항, 지역사회참여활동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활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944로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3) 노인의 사회적 지지 측정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일부 수정한 송정화(2014)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사회적 지

지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4개의 지지로 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1, 3, 9번),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2, 4, 8, 12번), 물질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5, 7, 11번), 평가적 지지에 관련된 문항(6, 10번)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62로 나타났다.

4) 노인의 삶의 질 측정

삶의 질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척도를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최종천(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893$ 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요인 내 항목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 관계성 여부와 관계 정도의 파악,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활동,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71	18.5
	여자	312	81.5
연령	79세 이하	110	28.7
	80세 - 84세	126	32.9
	85세 이상	147	38.4
교육수준	무학	175	45.7
	초졸	136	35.5
	중졸이상	72	18.8
배우자	없다	333	86.9
	있다	50	13.1
자녀동거	비동거	357	93.2
	동거	26	6.8
직업유무	없다	254	66.3
	있다	129	33.7
종교유무	없다	215	56.1
	있다	168	43.9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44	11.5
	좋지 않다	164	42.8
	보통	128	33.4
	좋은 편이다	47	12.3
경제사정	매우 좋지 않다	34	8.9
	좋지 않다	104	27.2
	보통	225	58.7
	좋은 편이다	20	5.2
합 계		383	100.0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71명(18.5%), 여자 312명(81.5%), 연령대는 79세 이하 110명(28.7%), 80-84세까지 126명(32.9%), 85세 이상 147명(38.4%)이었고, 교육수준은 무학 175명(45.7%), 초졸 136명(35.5%), 중졸 이상 72명(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없음 333명(86.9%), 있음 50명(13.1%), 자녀와의 동거에서는 동거가 26명(6.8%), 비동거가 357명(93.2%)이었고, 직업유무에서는 254명(66.3%)이 직업이 없고, 129명(33.7%)이 직업이 있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 없음이 215명(56.1%),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8명(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지 않다 164명(42.8%), 보통 128명(33.4%), 좋은 편이다 47명(12.3%), 매우 좋지 않다 44명(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정에서는 보통 225명(58.7%), 좋지 않다 104명(27.2%), 매우 좋지 않다 34명(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한 주요변인은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삶의 질이며, 독립변인 사회활동의 하위변인은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3개로 분류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사회활동은 전체 5점 만점에 2.62(표준편차 1.0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경제활동은 2.86점(표준편차 1.35), 자원봉사활동 2.09점(표준편차 1.34), 지역사회참여활동은 2.90점(표준편차 1.28)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중 지역사회참여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4점(표준편차 .83)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인인 삶의 질은 총점 5점 중 3.24점(표준편차 .97)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n: 383)

변인	척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편차
독립변인	사회활동	1.00	5.00	2.62	1.08
	경제활동	1.00	5.00	2.86	1.35
	자원봉사활동	1.00	5.00	2.09	1.34
	지역사회참여	1.00	5.00	2.90	1.28
	사회적지지	1.00	5.00	3.64	.83
종속변인	삶의 질	1.00	5.00	3.24	.97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활동과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등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 규명을 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 유의확률을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IV-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자녀, 직업, 종교, 건강, 경제 등 9개의 변수가 있었고, 독립변수인 사회활동과 사회활동의 하위변인 인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과 사회적 지지 등 5개의 변수와 종속 변수인 삶의 질까지 총 15개의 변수가 있었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사회활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r=.268, p<.01$), 직업유무($r=.445, p<.01$), 종교유무($r=.138, p<.01$), 건강상태($r=.176, p<.01$), 경제사정($r=.226, p<.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연령,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r=.276,$

$p < .01$), 연령($r = .158$, $p < .01$), 최종학력($r = -.108$, $p < .05$), 배우자유무($r = .111$, $p < .05$), 자녀동거유무($r = .114$, $p < .05$), 직업유무($r = .272$, $p < .01$), 종교유무($r = .218$, $p < .01$), 건강상태($r = .218$, $p < .01$), 경제사정($r = .214$,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r = .214$, $p < .01$), 연령($r = .197$, $p < .01$), 최종학력($r = .101$, $p < .05$), 직업유무($r = .194$, $p < .01$), 종교유무($r = .114$, $p < .05$), 건강상태($r = .277$, $p < .01$), 경제사정($r = .378$,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의 최대치가 .854이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에 가까운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²⁾

2)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계수가 0.8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표 6> 측정변인의 상관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별(1)	1													
연령(2)	.164**	1												
최종학력(3)	-.463**	-.446**	1											
배우자유무(4)	-.054	-.036	.087	1										
자녀동거유무(5)	.102*	.006	-.014	.019	1									
직업유무(6)	.240**	-.030	-.083	.183**	.137**	1								
종교유무(7)	.164**	-.034	.022	-.030	.033	.060	1							
건강상태(8)	.071	.045	-.033	.125*	.060	.215**	.074	1						
경제사정(9)	.157**	.194**	-.105*	.095	.005	.193**	.056	.360**	1					
사회활동(10)	.268**	-.078	.000	.083	.081	.445**	.138**	.176**	.226**	1				
경제활동(11)	.322**	-.084	-.059	.178**	.118*	.606**	.111*	.199**	.279**	.818**	1			
자원봉사활동(12)	.061	-.080	.131*	-.061	-.017	.136**	.080	.080	.043	.775**	.392**	1		
지역사회참여활동(13)	.275**	-.026	-.075	.086	.098	.345**	.148**	.152**	.233**	.854**	.064**	.499**	1	
사회적지지(14)	.276**	.153**	-.108*	.111*	.114*	.272**	.163**	.218**	.214**	.508**	.435**	.290**	.522**	1
삶의 질(15)	.214**	.197**	-.101*	.059	.084	.194**	.114*	.277**	.378**	.359**	.377**	.134**	.371**	.471**

* p<.05, ** p<.01, *** p<.001

* 성별(남=1), 학력(무학력=1), 배우자(없음=1), 자녀(없음=1), 직업(없음=1), 종교(없음=1)

4.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V-4>과 같다.

모형1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1.573$,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8%였다. 모형1에서는 변인 중 경제사정($\beta=.264$, $p<0.001$)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1에 사회활동 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4.048$,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4%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변인 중 연령대($\beta=.174$, $p<0.001$), 경제사정($\beta=.227$, $p<0.001$), 사회활동($\beta=.277$, $p<0.001$)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활동,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성별	.336	.134	.193	.077	.109	.043
연령대	.181	.151	.207	.174***	.141	.118
최종학력	.084	.065	.047	.036	.038	.030
배우자유무	.030	.010	.030	.010	-.033	-.011
자녀동거여부	.184	.048	.177	.046	.112	.029
직업유무	.159	.077	-.047	-.023	-.048	-.024
종교유무	.126	.064	.090	.046	.042	.022
건강상태	.163	.143	.151	.132	.117	.102
경제사정	.355	.264***	.305	.227***	.300	.223***
사회활동			.249	.277***	.126	.140
사회적지지					.354	.303***
상수	.989		.706		.092	
R	.467		.524		.579	
R ² (adjR ²)	.218(.199)		.274(.255)		.355(.315)	
F	11.573***		14.048***		16.969***	

Durbin-Watson=1.505

* p<.05, ** p<.01, *** p<.001

비고: 성별(남=1), 학력(무학력=1), 배우자(없음=1), 자녀(없음=1), 직업(없음=1), 종교(없음=1).

모형3은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 1에 사회활동요인을 추가 투입한 모형2에 사회적 지지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6.969,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5%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변인 중 경제사정(β =.223, p<0.001), 사회적 지지(β =.303, p<0.001)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활동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활동의 하위변인인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8> 사회활동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성별	.336	.134	.123	.049	.052	.021
연령대	.181	.151	.232	.195***	.168	.141
최종학력	.084	.065	.087	.068	.069	.054
배우자유무	.030	.010	-.067	-.023	-.112	-.039
자녀동거여부	.184	.048	.113	.029	.066	.017
직업유무	.159	.077	-.191	-.093	-.189	-.092
종교유무	.126	.064	.079	.041	.040	.020
건강상태	.163	.143	.160	.140	.126	.110
경제사정	.355	.264***	.255	.190***	.258	.192***
경제활동			.185	.256***	.155	.214
자원봉사활동			-.058	-.079	-.067	-.093
지역사회참여활동			.160	.212***	.083	.110
사회적지지					.332	.284***
상수	.989		.597		.043	
R	.467		.552		.597	
R ² (adjR ²)	.218(.199)		.305(.282)		.356(.333)	
F	11.573***		13.515***		15.703***	

Durbin-Watson=1.541

* p<.05, ** p<.01, *** p<.001

비고: 성별(남=1), 학력(무학력=1), 배우자(없음=1), 자녀(없음=1), 직업(없음=1), 종교(없음=1).

모형2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모형1에 사회활동의 하위변인들을 추가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3.515$,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연령대($\beta=.195$, $p<0.001$), 경제사정($\beta=.190$, $p<0.001$), 경제활동($\beta=.256$, $p<0.001$), 지역사회참여활동($\beta=.212$, $p<0.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사정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활동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모형2에 사회적 지지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5.703$,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6%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변인 중 경제사정($\beta=.192$, $p<0.001$), 사회적지지($\beta=.284$, $p<0.001$)로 나타났다. 즉 경제사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020년 한국은 노인인구가 812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통계청, 2020), 인구고령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거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시켰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수는 150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더 놀라운 사실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2047년에는 이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통계청, 2020),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독거노인은 가족과 분리되어져 생활함으로써 동거하는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동거 가족이 있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빈곤 및 만성질환과 영양부족 등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정관·김준현, 2013).

또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노인인구가 14%에 도달한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6.51%를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으로 지출한 반면,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2.23%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여유진, 2019).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노인단독가구로, 노인단독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 빈곤율이 2010년 57%로, 다음으로 높은 2인 노인가구의 35.0%와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진재문, 2014).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김영범·이승희, 2018),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은 평균 3.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61.8%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독거노인에 비해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본 연구는 제주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이다. 세대 간 독립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지역사회공동체가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특성(박경희, 2020)속에서도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와 그에 따라 늘어나는 독거의 생활, 경제적 궁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제주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1. 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연구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사회활동 점수 5점 만점에 2.62점(표준편차 1.08)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인 경제활동은 2.86(표준편차 1.35), 자원봉사활동 2.09점(표준편차 1.34), 지역사회참여활동 2.90점(표준편차 1.28)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중 지역사회참여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4점(표준편차 .83)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인인 삶의 질은 총점 5점 중 3.24점(표준편차 .97)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71명(18.5%), 여자 110명(28.7%)으로 남자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많았고, 연령대로는 79세 이하 110명(28.7%), 84세 이하 126명(32.9%), 85세 이상 147명(38.4%)이며, 최종 교육에서는 무학자가 175명(45.7%), 초졸 136명(35.5), 중졸이상 72명(18.8%)으로 대체로 학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없는 노인이 333명(86.9%),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50명(13.1%)이었다. 자녀와의 동거 유무에서는 비동거가 357명(93.2%), 동거 26명(6.8%)으로 90% 이상이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다고 하는 노인이 254명(66.3%), 직업이 있다고 하는 노인은 129명(43.9%)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노인은 215명(56.1%), 종교가 있는 노인은 168명(43.9%)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노인이 약간 많았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44명(11.5%), 좋지 않다 164명(42.8%), 보통이다 128명(33.4%), 좋은 편이다 47명(12.3%)으로 대체적으로 보통이하로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경제 사정을 보면 매우 좋지 않다 34명(8.9%), 좋지 않다 104명(27.2%), 보통이다 225명(58.7%), 좋은 편이다 20명(5.2%)이 응답하였다.

셋째,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활동(하위변인 포함)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5.703$,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6%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인 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문제 2인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 삶의 질에 대해서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남기민, 2006; 신경인, 2009; 남기민·박현주, 2010; 김은경·하규수, 2013; 김우신, 2013; 김남현·정민숙, 2017; 장연식, 2017; 최선하, 2017)에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고승덕, 1996; 김윤정·최혜정, 2000; 고보선, 2004; 최은영, 2005; 장미선, 2005; 안경숙, 2005; 김수정, 2006)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성독거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오늘날 노인세대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을 선호(Kim et al, 2000 재인용)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

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성이 있음이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들에게 사회 활동과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무학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보다는 독거노인이 많고 그리고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에서도 보통이하의 노인이 많았다. 이들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학력수준에 따라, 주거유형에 따라, 그리고 경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모든 노인을 하나의 공통된 집단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개성과 특성, 처지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 하위변인인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중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참여활동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활동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수준별에 따라 일반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자아정체감을 재확인하고 유지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김남현·정민숙, 2017)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사회활동 참여 영역의 발굴과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 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가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것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고령시대를 맞이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지역별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단순하고 제약되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람 노인으로서의 욕구에 부합되고 노인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며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조집단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제언하다.

3. 연구의 한계

첫째,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 지역의 일반 대상자에 적용시켜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삶의 질의 변인, 사회활동변인, 사회적 지지변인들이 노인의 삶의 질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를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노인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시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란·박철우. 20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 177-189.
- 강경숙. 2003. “ 일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4.
- 강미희. 2019. “공적연금과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연구 -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연·김춘경. 2010.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K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30: 1409-1427.
- 강영숙·정자영. 2020.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 강은나. 2020. “ 인구고령화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고령사회의 삶과 일,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 강현정. 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26.
- 강혜련. 2014. “노인의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보선. 2003. “제주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1-12.
- 고보선. 2004. “제주노인의 사회적 지지유형과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 145-162.
- 고보선. 2014. “제주여성독거노인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63: 57-92.
- 고승덕. 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승한. 2008. “제주장수사회의 도래 : 진단과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32- 233.
- 권영순·오서진·이상주. 2020.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1.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 61-76.
- 김경배. 2018.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 9: 55-78.
- 김남현·정민숙. 2017.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광주시와 전남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 17(3).
- 김도균. 2016. “경기도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 노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197-222.
- 김미애. 2012.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균.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 서울: 나남출판.
- 김상수·임왕규. 2017. “사회적 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 101-115.
- 김수영·김진선·윤현숙. 200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 예측요인”. 『한국노년학회』 24: 101-128.
- 김수정. 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 지지 및 실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 33: 29-50.
- 김애련. 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범·이승희. 2018.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행위, 사회관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구유형별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9: 310-321.

- 김우신. 201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등포지역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최혜정. 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 209-223.
- 김은경·하규수. 2013.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1: 811-820.
- 김은정·정순돌. 2011.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 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김주현·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회』 21: 2-4.
- 김주현. 2009. “한국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 양상과 노년기 적응”. 『한국사회학회』 43: 101-132.
- 김진아. 2019.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1. “고령화 사회 제주노인의 특성과 복지정책 방향”. 『사회발전연구』 19.
- 김춘남·박춘배·전용호·박혜선·이초록. 2016. “경기도 노인 사회참여활동 성공모델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혜숙·강기은. 2013. “제주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연구”. 『노인복지연구』 59: 159-185.
- 김효진. 2007. “사회적 지지가 시설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민. 2006. 『고령사회와 노인』. 서울: 양서원.
- 남기민·박현주. 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 405-428.

- 남기민·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 325-348.
- 노병일·손정환. 2010.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케어복지학』 13: 77-96.
- 노유자·윤경이. 1997.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정부. 2018.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 림금란·김희경·안정선. 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 33-47.
- 문성제·손민성·윤희수·최만규. 2017.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기관 이용 간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 17: 479-490.
- 모선희. 1997. “노년기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 1-15.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 박경숙. 2017. “사회적 배재와 노인의 삶의 질”. 『한국노년학회』 . 1: 1-16.
- 박경희. 2020.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선.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 박삼욱 외. 2005.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선영. 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순·나동석. 2008. “취업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40: 149-174.
- 배나래. 2006.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9(2): 761-779.
- 배정희·윤옥화. 2014. “도서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315-334.
- 보건복지부.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강훈. 2013.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용어사전』. 경기: 이담북스.
- 성미혜·임영미·주경숙. 2011.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한국보건간호학회』 25: 95-106.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6: 601-615.
- 송인욱·원서진. 2020.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근로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1: 349-357.
- 송정화.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적장애인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인. 2009.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정·이혜경. 2019.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 노인재능 나눔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3): 117-145.
- 안경숙. 2005.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5: 1-20.
- 안수란. 2020. “코로나19와 노인사회서비스 전환을 위한 과제”. 『고령사회의

- 삶과 일』 1: 16-17.
- 안종철·임왕규. 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
- 안지영. 2015. “지역사회 노인의 회복력, 사회적지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민희. 2009. “한국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 소득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 . 364: 1-8.
- 연합뉴스. 2019. “소득 3만불시대 삶의 질 높여야”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
- 오승환. 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 도시·농촌·어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9-231.
- 오영희.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키백과. 2021. 『삶의 질』 .
- 유용식. 201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 16: 129-139.
- 이금룡. 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 1-22.
- 이금숙. 2018. “저 출산 고령사회 지역의료수급 예측”. 『대한지리학회』 91-93.
- 이금옥. 2011. “사회적 지지와 생활 스트레스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묘숙.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고립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는 매개하는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40: 231-259.
- 이민숙·김나영. 2007.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 161-176.

-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331-354.
- 이영균. 1997. “삶의 질(Quality of Life) 측정지표와 측정모형에 관한 소고”. 『공공관리부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36.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1(4): 223-250.
- 이영균·최승인. 2016. “노인사회활동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 20: 151-180.
- 이영자·김태현.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9: 79-93.
- 이은주. 2007.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도시 노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1: 34-62.
- 이정관·김준현. 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4: 191-211.
- 이정일·이철원·설수황.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한국웰리스학회지』 16: 155-161.
-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 사전』. 서울: 블루피쉬.
- 이희성·권순호. 2020.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1-2.
- 장미선. 2005.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백기. 2011.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연식. 2017. “독거노인의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인협·최성재. 200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명수. 201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전혜정. 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83: 515-536.
- 정경희. 2014. “노인의 특성변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정승은·최영희, 1996. “노인의 무력감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 지적 접근”. 『한국노년학회』 16(2): 67-80.
- 조성희·유용식. 2016.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 35-39.
- 조수범. 2010.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하. 2004.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주. 2009. “노인여가활동과 라이프스타일 및 삶의 질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추용. 2004.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13.
- 주경희. 2011. “사회참여 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회』 42: 5-39.
-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 39: 231-264.
- 주경희. 2010. “사회참여 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정·금현섭·하세윤. 2012. “고령화 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은정. 2019. “통합적 체계적 노인 사회활동 만들어야”. 『월간공공정책』 163: 15-17.
- 진재문·김수영·문경주. 2014. “노인가구의 빈곤 실체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 239-258.
- 차용진. 2013.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12 OECD Better Life

- Index(BLI) 모형 검증”.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7(2): 1-26.
- 최선하. 2017.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05. “사회적 지지망이 독거노인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천. 2008.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가족형태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화강. 2012.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임. 200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절망감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43: 183- 202.
- 최흥권. 2010.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령자집단과 초고령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9.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 .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 통계청. 2021. 『국가지표체계, 독거노인 비율』 .
- 하은호, 2000. “양로시설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김주현.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 209-22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사업정보시스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6: 50-53.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제주지역 인구고령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
- 한석태. 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

- 수의 비교”. 『한국행정학회보』 42(3): 441-461.
- 한형수. 2002.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석필·김범호. 2021. “도시지역거주 노인들의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 22: 411-422.
- 행정자치부. 2019. 『주민등록인구통계』 .
- 홍순혜. 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종남·권순만. 2009.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회』 29: 971-986.
- nate뉴스. 2019. “「국가브리핑」 소득하위 20% 가구주 10명중 4명은 70세 이상”. seeit@news1.kr
- Cavan et al. 1949; Havighurst and Albrecht. 195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S. Cohen. and H. Hoberman. 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Appl Soc Psychol. 13: 99-125.
- Chung Hwa Han. 2010. “ Structural Model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DaeguHaany University.
- Lewis. F. M. 1982. “Experienced Personal Control and Quality of Life in Late-Stage Cancer Patients”. Nursing Research, 31(2): 113-119.
- G. V. Padilla and M. M. Grant.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variable”. Advanced in Nursing science 3(4): 43-59.
- F.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D. Jeffrey Sachs 2018. “World Happiness Report”.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A revision”. J Gerontol. 30, 85-89.

- Liu. B. C. 1975. "Quality of life: Concept, measure and result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4: 1-14.
- Mitchell, Logothetti and Kantor, 1973; Dalkey, Roureke, 1973; Benn, 1973; EPA, 1973; OECD, 1974; George, 1980.
- R. W. Rice and M. D Miller. 1990. "Developing a model for the study of quality of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Use of hypertension as an example". Southern Medical journal. 83(8).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Jeju

Yang Jee-ha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support 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Jeju. Thus searching for plans to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future.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collected data with a self-report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the elderly that were participating in projects of jobs and social activity supports for the elderly or receiving custo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Jeju. After 17 questionnaires containing insincere answers were excluded from 400 distributed ones, 383 were used in the analysi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4.0 program.

The findings show that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had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etter economic conditions and higher social activities and support led to their higher quality of life.

Key words: the elderly, social activity, social support, the quality of life, jeju.

< 설 문 지 >

ID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 서쪽(애월, 한림, 한경) 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어르신과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어르신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교수 남진열

■ 연구자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양지혜

(010- 7477 - 3367)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
 르신께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응 답 란
1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대는?	① 65~69세 ② 70~74세 ③ 75~79세 ④ 80~84세 ⑤ 85세 이상
3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4	배우자 유무는?	① 없다(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인 경우) ② 있다(배우자 생존)
5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 ②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6	직업 유무는?	① 직업이 없다 ② 직업이 있다
7	종교 유무는?	① 종교가 없다 ② 종교가 있다
8	귀하의 건강 상태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이 좋은 편이다
9	귀하의 경제 사정은?	①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② 경제가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경제가 좋은 편이다

Ⅱ. 다음은 귀하의 사회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르신
의 동의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경제활동(농사, 임금 노동 등을 통한 소득활동)						
1	현재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제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자원봉사활동(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 시설 등의 봉사활동)						
6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보람되고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사회 참여활동						
11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매일 노인회관에 들러 사람들과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지역에서 공동작업(청소, 환경보호 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르신의 동

의 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 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 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 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 고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줄 수 없 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 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주위 사람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 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주위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 로 받아들여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삶의 질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어르신의 동의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 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대체적으로 나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삶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나의 생활환경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